Track 01

**MAN:** Reading 1, 지구 온난화

향후 지구에 닥칠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구 온난화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어떠한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는 것일까? 또한 그 원인 및 대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는 곧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니, 지구 온난화는 단순히 한 나라에만 얽힌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와 관련한 문제이다.

1800년대 이래로 사람들은 일과 작업에 점점 더 형태가 발전되고 규모가 큰 기계를 사용해왔다. 이러한 기계는 기름이나 석탄을 그 동력원으로 삼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많은 양의 매연도 발생시킨다. 연기에는 “온실가스”로 알려진 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온실가스가 지구를 온실처럼 만드는 것이다.

진짜 온실은 식물을 키우는 데 활용되는 온실을 말한다. 햇빛이 이 온실로 들어와서 내부를 무척이나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하여 식물이 자라는 데 유용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보통 온실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햇빛이 지구를 비추어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밤이 되면 지구의 어두운 부분은 온도가 내려간다. 또한 겨울이 되면 햇빛이 물론 땅이나 물을 데워주지만 이는 여름에는 미치지 않는 정도일 뿐이다. 이처럼 지구에는 연간 또는 일 단위로 그 온도를 자연적으로 냉각시켜주는 때가 따로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가 생산된 지 약 150년이 지난 이후 대기는 온실가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가스는 지구가 자연적으로 땅과 물을 냉각시키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며, 공기 중의 온실가스는 태양열을 잡아 두기까지 한다. 그래서 지구는 마치 진정한 온실 내부와 같이 열로 차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과정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2100년이 되었을 때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약 1도에서 5도가량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온난화로 인한 주요 문제는 해수면의 상승에 있다. 지구의 상당 부분이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얼음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이미 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녹은 물은 바다에 합류하여 해수면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미래에는 바다 근처의 수많은 장소들이 바닷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Track 02

**WOMAN:** Reading 2, 사막 식물

사람들에게 식물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정원이나 공원, 또는 숲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식물의 범주로 떠올리기 쉽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막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막이야말로 대단히 까다로운 환경에서 생존 및 성장이 가능한 여러 식물들로 가득한 생태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사막은 낮에는 영상 50도,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일교차가 심한 환경이다. 이런 일교차는 대부분의 식물이 버티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열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사막의 공통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물이나 비의 희소성인데, 비는 특히 몇 달에 한 번씩 내리기도 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식물은 생존에 물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물이 드문 극한 환경에서 사막 식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얻는 것일까?

사막 식물의 생존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이파리 없이 성장하는 식물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물은 뜨거운 태양에 의해 증발되는 수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인장류가 이 식물에 속하는데, 이들은 물을 찾아 저장할 수 있는 자체적인 특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선인장류는 내부에 수분을 보관하여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꺼우면서도 부드러운 표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인장은 한 번 내린 비만으로 몇 주 내지 몇 달까지도 생존이 가능하다. 또한 치명적인 가시도 돋아있어 동물에게 먹힐 위험을 방지하기도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지하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길게 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길게 내린 뿌리는 어느 곳이든 물을 찾아서 자랄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번 물을 찾으면 그 물을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여 내부에 저장한 다음 지상의 식물이 한 번에 소량씩만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사막 식물의 세 번째 생존 방식은 “잠을 자는 것.”이다. 일부 식물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죽은 듯이 잠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렇게 기다리다 비가 내리면 재빨리 가능한 모든 빗방울을 흡수하면서 잠에서 깨어난다. 사막에 비가 내리고 며칠이 지나면 이처럼 다양한 식물에 초록색의 커다란 이파리와 총천연색의 꽃이 피어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식물들은 다시 잠에 빠져들어 다음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린다.

Track 03

**MAN:** Reading 3, 코모도 왕도마뱀(코모도 드래건)

코모도왕도마뱀(코모도 드래건)은 사실 이름처럼 진짜 용으로 분류되는 동물은 아니다. 즉 용처럼 불을 내뿜거나 공중을 날아다니지 않는다. 다만 크기가 무척이나 클뿐이다. 코모도왕도마뱀은 뜨겁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며 인도네시아의 소수의 지역에서 서식한다. 이러한 동물의 존재가 유럽에 최초로 전해진 때는 1910년이었다. 그때 이후로 과학자들은 이 특별한 동물의 삶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코모도왕도마뱀은 평균 2-3미터 길이이고 무게는 70킬로그램에 달한다. 이들은 육식동물로 대개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삼는데, 심지어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더 큰 동물을 잡아먹기도 한다. 그리고 공격을 당하면 코모도왕도마뱀은 단시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이 속도는 시간당 최대 20킬로미터까지 이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동물도 먹이로 삼는다.

코모도왕도마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끼를 갖는 방식에 있다. 수컷과 암컷이 만나 알을 품고 새끼로 성장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코모도왕도마뱀은 수컷이 없는 환경에서도 암컷이 스스로 알을 낳아 새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2005년과 2006년에 런던 동물원에서 약2년 간 수컷과 접촉하지 않은 암컷 코모도왕도마뱀이 알을 낳아 새끼로 성장시키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서로 떨어져 있는 작은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코모도왕도마뱀과 같은 동물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생존 방식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코모도왕도마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드문 일에 속한다. 1900년대 초반 이래로 전 세계에서 12명 만이 이 동물의 공격으로 죽었다. 그리고 이중 대부분의 경우도 대상이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병자였고, 먼저 코모도왕도마뱀에게 무언가를 던진 사람들도 있었다.

2015년, 코모도왕도마뱀은 전 세계 약 3천 마리만 야생에 남았다.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이 동물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코모도왕도마뱀은 본래의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는 오래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 왕도마뱀을 살리기 위하여 코모도 국립 공원을 만들었다. 이 공원의 내부에는 코모도왕도마뱀이 서식하는 여러 작은 섬들을 포함한 보호 구역이 마련되어 있다.

Track 04

**WOMAN:** Reading 4, 북극광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아마도 북극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북극광은 오직 북극에서 2,500킬로미터 내에 있는 먼 북쪽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불빛 쇼이다. 북극광의 색채 스펙트럼에는 빨간색과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초록색이 가장 보기 흔한 색채이다. 이 북극광만을 보기 위하여 그곳까지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오랜 시간 북극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1950년대에 연구가 진행되면서 마침내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북극광은 지구가 태양풍을 맞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태양풍은 지구와 가까워질 때 북극과 남극 쪽으로 이끌리는데, 이 바람이 극 주변의 공기에 닿아 부딪치면서 공기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이다.

발산되는 색채는 부딪친 공기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상에서 높이 떨어져 있는 곳의 공기와 지상에서 가까운 곳의 공기는 함유하고 있는 가스의 종류가 다르다. 예컨대, 태양풍이 지상으로부터 3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의 공기와 부딪치면, 초록색이나 빨간색의 빛을 발산한다. 한편, 태양풍이 지상과 더 가까운 공기에 부딪치면 북극광은 그보다 더 다양한 색채를 발산한다.

이러한 북극광은 보기에는 예쁘지만, 간혹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통신 및 전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식이다. 반면에 유용한 점도 있다. 인간이 통제하는 방법만 익힌다면, 태양풍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하면 우리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북극광은 주로 북극 주변에서 관측되는데, 이곳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북극광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따금 남쪽 더 먼 곳에서도 관측되기도 한다. 사실, 플로리다만큼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보인다. 다만 이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 아니며, 오직 태양풍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는 경우에만 볼 수 있다.

Track 05

**MAN:** Reading 5,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800년대 가장 잘 알려진 영웅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최초의 근대식 간호사로 알려져 있으며 생전에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90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나이팅게일은 다리를 다친 강아지를 도와준 경험 그 이후로 여섯 살 때 처음으로 간호사가 되기를 꿈꿨다. 그 후, 그녀는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도왔다. 그리고 1854년,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했을 당시 영국 정부는 그녀에게 다친 군인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팅게일은 병원의 상태가 무척이나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힘썼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군 지도자는 전쟁에 여성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특히 그들이 무언가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여성이라면 더 달갑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나이팅게일은 근대식 간호를 시작한 여성으로서 더욱 잘 알려지게 되었다.

나이팅게일이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에는, 군인이 다쳐서 죽는 경우보다도 질병이나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 또는 형편없는 보살핌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들이 사용하는 침대나 입고 있는 옷의 위생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군인들이 입을 수 있을 만한 깨끗한 셔츠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매달 제공되는 깨끗한 셔츠는 단 몇 벌이 전부라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그러나 단 몇 벌의 셔츠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비를 들여서 수백 장의 셔츠를 구매했고, 집을 임대하여 난방을 설치한 다음 군인들의 아내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병원을 위한 세탁 일을 맡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나이팅게일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였다. 그녀는 바닥을 닦았으며, 음식을 요리했고, 죽어가는 남자들을 보살폈다. 이따금 새벽 2시나 3시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기도 했다.

나이팅게일은 1910년 그녀가 죽는 그 해까지도 군인들의 보건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앞장섰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그녀를 추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런던에 나이팅게일 간호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간호에 관한 한 최고 권위의 국제 상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메달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생일을 국제 간호사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Track 06

**WOMAN:** Reading 6, 테리 폭스

암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대단히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암으로 인하여 다리를 잃어야만 한 상황이라면 더욱 강해야만 한다. 그런데 암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하여 암에 걸려 다리를 잃은 상황에서조차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바로 테리 폭스라는 캐나다의 한 남자가 이러한 영웅이었다.

의사에게 다리에 일종의 골종이 있다는 사실을 폭스와 가족이 진단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다. 그때 의사는 어쩌면 다리를 잘라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폭스는 그렇게 다리를 잃었을 때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의족에 익숙해지는 법을 빠르게 익혔고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폭스는 병원에서 다른 암 환자들과 시간을 보낸 이후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암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는 암 연구 기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폭스는 캐나다 모든 국민들 각자에게 1달러씩을 받고자 했다. 당시 캐나다의 인구가 2400만 명이었으니 그는 암 연구 기금으로 2400만 달러를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기금 마련의 방법으로 전국을 달리기로 횡단하는 것을 계획했다.

폭스는 1980년 4월 12일에 뉴펀들랜드의 한 해변에서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는 하루에 약 42킬로미터 거리를 달렸고, 달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암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폭스와 그의 꿈을 위하여 돈을 기부했다. 폭스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8월이 되었을 때에는 캐나다의 절반 정도 되는 거리를 가로질렀다.

달리는 도중에 폭스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달리기를 멈추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달리기를 포기하고 병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리고 슬프지만 그는 암 연구 기금으로 2400만 달러가 모이기도 전인 1981년에 달리기를 마치지 못한 채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사실 그의 죽음 이후로, 매년 테리 폭스 달리기 성금으로 전 세계에서 3억 6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모였다.

Track 07

**MAN:** Reading 7, 올해의 인물

1927년 이래로 타임지는 매년 12월에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왔다. 여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이 선정되었다. 최초로 선정된 인물은 찰스 린드버그였다. 그는 북미에서 유럽까지 최초로 비행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올해의 인물에는 이처럼 꼭 선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만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말에는 각각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물들, 아돌프 히틀러(1938년)와 이오시프 스탈린(1939년)이 선정되었다. 타임지가 다소 예상 밖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남자가 온 세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나 “위기의 지구”와 같은 일종의 개념 또는 아이디어가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위자”나 “미군”과 같은 집단이 선택된 적도 있다.

한편,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여성은 드물다. 사실 타임지가 “올해의 남성”에서 “올해의 인물”로 그 이름을 바꾼 것도 1999년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앞으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여성이 얼마나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2017년 현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단 4명의 여성만이 지금까지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선정된 인물들을 살펴볼 때, 잡지의 발행지가 어디이고 대상 구독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타임지의 구독자는 전 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 있지만, 그 소유주는 어디까지나 미국인이며 미국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 기준 또한 언제나 미국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당신의 국가 또는 전 세계의 한 부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정에서는 제외될 수가 있다. 그러나 결국 타임지도 상업 잡지이다. 그들이 지나치게 예상 밖의 선택을 한다면 어떤 구독자도 잡지를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올해에는 어떤 인물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만약 과거의 전례를 따른다면 아마도 남성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선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알겠는가. 올해만큼은 타임지가 예상외의 선택을 할지 말이다. 과연 누가 선택될지 지켜보도록 하자.

Track 08

**WOMAN:** Reading 8, 마야 안젤루

마야 안젤루(1928-2014)는 미국의 작가이자 배우로서 대중에게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다방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도맡았으며 여러 가지의 기술과 지식 분야에 있어 높은 영예를 누린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연기와 시, 시나리오, 그리고 자서전에 관하여 명예로운 인정을 받았다. 또한 어떠한 대학 교육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 30곳 이상의 미국 대학교로부터 학위를 수여받았다.

마야 안젤루는 1928년 4월 4일에 태어났으며, 본명은 마거리트 존슨이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3살 때 이혼했다. 그래서 그녀는 할머니와 살기 위해 오빠와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리고 여덟 살이 되던 해에는 어머니와 살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삶은 할머니와 지낼 때보다도 더 좋지 않았다. 그 해에는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이 어린 소녀를 학대하여 다치게 만들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야 안젤루는 5년간 오빠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안젤루는 이후로도 몇 년 간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지냈지만 모든 상황에서 문제를 겪었다. 그래서 결국 가출해 한동안 차에서 홀로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머니와의 삶으로 돌아갔고, 16살 때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을 했다.

안젤루는 요리사 및 사업 매니저,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가수로서 일하기도 했다. 또한 결혼도 했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다. 그 후로 안젤루는 배우로서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언어를 익혔고, 다양한 영예를 얻었다.

1969년에는 최초의 저서,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를 세상에 발표했다. 이 책은 그녀의 삶을 다룬 책으로 그녀가 더 큰 유명세를 얻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녀는 2014년에 사망하기까지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했을 때에는 미셸 오바마나 빌 클린턴과 같은 여러 저명한 인사들이 그녀에 관한 추모의 말을 남겼다. 또한 2015년에는 모두가 그녀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미국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다.

Track 09

**MAN:** Reading 9, 분쟁 지역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 당신은 어느 나라에 있는가? 이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답하기에 꽤 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영토로 분쟁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한 나라에서 그들의 영토라고 믿고 있는 땅을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장소를 분쟁 지역이라고 일컫는다.

이따금 섬이나 제도가 이러한 분쟁 지역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48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남 대서양 지역이다. 전 세계 대다수 국가 사람들은 이곳 제도를 폴크랜드 섬이라고 알고 있다. 그들은 자치 정부와 법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과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보호령에 속해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제도를 이슬라스 말비나스라고 부르며 그들 영토의 일부라고 여긴다. 그들은 1800년대 초기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되었을 당시 섬의 통제권 또한 넘겨받았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거리상으로 1만 2천 킬로미터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영국이 이 제도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그들은 1833년에 섬의 통제권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폴크랜드 섬의 주민들도 아르헨티나 국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한다. 2013년에 진행한 투표에 따르면 인구의 99퍼센트는 영국의 보호령 하에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82년에는 영토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아르헨티나에서 섬으로 군대를 보냈고, 영국에서는 이 섬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10주간의 섬에 대한 영토 전쟁으로 약 천여 명의 사람이 죽었다. 전쟁 이후로도 양국은 여전히 섬에 대한 권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비록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언젠가는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자국과 가깝지도 않은 이처럼 작은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그토록 열심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유형의 분쟁이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자못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분쟁에는 역사와 정치 문제가 녹아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논쟁은 수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이제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게 되었다.

Track 10

**WOMAN:** Reading 10, 서양 세계

서양 세계라고 하면 대개 남미나 북미, 유럽, 또는 호주와 같은 몇몇 국가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서양 세계의 의미에는 보통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따금 러시아가 포함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서양” 세계라고 해도 그것이 항상 서쪽에 있는 국가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서양 세계”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사람들은 로마 제국 말기에 처음으로 동양과 서양을 구분 지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기 200년과 서기 500년 사이에는 일부 결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먼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는 세계사 최초의 “동부”와 “서부”로 나뉜 사건이었다.

서부 제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더 작은 부분들로 다시 곧 나뉘게 되었는데, 이 나뉜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이따금 서로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서로를 많이 닮아 있는 민족으로 보고 있으며, 자신들을 동양의 모든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이들이라고 여긴다.

유럽인들에게 “서양”이란 “우리”라는 의미이고, “동양”은 그 외의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 그리스와 남부 러시아 부근의 동부 아시아 국가들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이고, “극동”은 인도에서 일본까지 이르는 국가들을 아울러서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국가들은 유럽인들에게는 “동양”에 해당한다. 여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 후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들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서양의 문화들도 함께 퍼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그리고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서양 국가의 일부로 포함되는 이유이다. 이 국가들이 서쪽에 위치한 국가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양의 아이디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서양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완전한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던 인도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오늘날 서양 세계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요즘은 서양 세계라고 하면 서양의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로 따르고 있는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일본을 부분적으로 “서양화된” 국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이 정치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서구의 아이디어를 좇고 있기 때문이다.

Track 11

**MAN:** Reading 11, 오대호

오대호란 북미에 존재하는 다섯 개의 커다란 담수호를 묶어서 통칭하는 말이다. 이 오대호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각 호수의 크기로만 따져 본다면 오대호 가운데 어느 호수도 전 세계 호수와 견주었을 때 가장 큰 호수는 없다. 다만 이 호수를 집단으로 묶어서 보게 되면, 오대호는 전 세계 담수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 호수로 분류된다. 또한 분류는 비록 담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오대호는 바다와 더 유사한 점이 많다.

오대호는 각 호수 별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명칭은 주로 미국 원주민 언어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다. 이리 호와 휴런 호의 경우에는 둘 다 그 주변 지역에서 살던 집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한편 온타리오 호와 미시간 호의 이름은 미국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한다. *온타리오*란 “아름다운 호수,”라는 의미이며, *미시간*은 “커다란 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슈피리어 호의 이름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다. 이는 “상위” 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대호는 모두 대단히 큰 규모의 호수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크기는 서로 상당히 다르다. 이 중에서는 폭이 310킬로미터에 길이는 85킬로미터 규모의 온타리오 호가 가장 작고, 이리 호는 그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수준이다. 그리고 크기로는 슈피리어 호가 가장 크다. 이 호수의 폭은 560킬로미터를 훨씬 웃돌며 길이는 257킬로미터에 이른다. 사실 이 슈피리어 호는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이 호수의 크기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이다.

오대호는 주변에 거주하는 미국 원주민 집단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수였다. 그들이 식량과 식수를 주로 오대호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이나 작은 규모의 호수들이 오대호로 합류하는 구조이므로 미국 원주민들은 보트를 타고 주변 지역을 어렵지 않게 여행하는 것도 가능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오대호는 대서양에서 북미의 중심부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데 중요한 수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매일 크고 작은 보트들이 한 쪽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오대호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 호수 부근의 육지는 농경에도 비옥한 토양이다. 그 주변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먹이 식물들을 키워서 보트로 이 식품을 운송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대호의 큰 규모는 이점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수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실은 수백 척의 보트가 오대호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Track 12

**WOMAN:** Reading 12,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는 서 태평양의 해저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 깊고 좁은 골짜기를 말한다. 이 해구는 길이만 2천 킬로미터가 넘고 폭은 약 75킬로미터에 달한다. 그러나 마리아나 해구가 흥미로운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그 깊이에 있다.

마리아나 해구에서 가장 깊은 부분을 “챌린저 딥”이라고 부른다. 이곳은 물의 상층부로부터 약 11킬로미터 깊이에 있는데, 그 깊이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상상을 돕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을 이 챌린저 딥에 넣어본다고 가정해보면 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산의 상층부 아래로 1킬로미터 이상의 깊이가 남는다.

마리아나 해구는 그 깊이가 상당하여 연구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 해저 11킬로미터는 물의 온도도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거의 얼음과도 같은 온도) 빛조차 닿지 않아 온 사방이 어둡다. 또한 수압도 무척 높아서 특수 제작된 기계만이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수년간 마리아나 해구를 연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875년에는 영국 선박이 그 해구의 깊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긴 밧줄을 떨어뜨려 보기도 했다. 그들은 약 8킬로미터 지점까지 깊이를 알아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는 또 다른 영국 선박이 더 발전된 도구를 이용하여 11킬로미터 깊이를 기록하였다.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마리아나 해구의 해저에 이르렀다. 1960년에는 두 남자가 특수 제작된 잠수함을 타고 해구의 아래로 내려갔다. 그들은 약 다섯 시간가량 잠수함을 타고 해구를 유영했지만, 해저에서는 심한 수압으로 인해 20분 밖에 머물지는 못했다. 그 이후로 몇몇 다른 사람과 무인 잠수정이 해구의 밑바닥을 탐험했다. 한편, 그 지점까지 내려간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영화 아바타의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이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그와 같이 깊은 해저에서 물고기나 기타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2011년에는 마리아나 해구로 카메라를 떨어뜨려 관찰해 보았고 그 결과 놀라운 생명체를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발견한 생명체 가운데 하나는 그 길이가 약 10센티미터에 이르는 대단히 큰 단세포 생물이었다. 또한 그 밖에도 신종 물고기를 다양하게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나 해구의 심해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개체수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Track 13

MAN: Reading 13, 영웅의 여정

어느 날 자신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한 나이 든 스승이 이 남자가 자신의 힘에 대해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를 세상을 구하기 위한 영웅의 여정으로 보낸다. 그는 처음에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내 마음을 바꾼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이 남자는 몇몇 특별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

혹시 이 줄거리를 보고 해리포터를 떠올렸는가? 아니면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나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를 생각했는가? 어쩌면 슈렉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당신은 이 줄거리를 바탕으로 위에 적은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도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영웅 이야기는 전부 동일한 기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프 캠벨이라는 남자가 이야기에 관한 한 가지의 패턴을 생각해냈다. 캠벨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한 이야기는 주로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이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하여 알게 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 영웅은 나이가 지긋한 똑똑한 스승과 함께 자신이 가진 힘을 단련한다. 예컨대, 루크 스카이워커는 오비완 케노비와 함께 훈련한다. 이 스승이라는 존재는 이야기가 끝을 맺기 전에 죽기도 한다. 영웅은 또한 다른 인물들에게도 도움을 받는다. 이따금 이러한 캐릭터는 인물이 아니라 동물이기도 하다. 간혹 처음에 보았을 때는 선한 역할인지 완전하게는 알 수 없는 친구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스타워즈의 한 솔로이다. 그리고 영웅은 결국 세상을 구하는데, 그에 따라 그의 행동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그 예로, 슈렉은 타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방식을 배운다. 영웅은 일반적으로는 이야기의 초반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로 끝을 맺는다.

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 알려진 패턴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캠벨이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모두 *동일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의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이야기들의 등장인물들을 바꿔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타워즈의 오비완 케노비를 해리포터의 덤블도어 교수로 바꿔놓고 상상해보자. 이렇게 바꾸었을 때 두 이야기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가? 두 인물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본 이야기의 틀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그러니 캠벨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신도 이러한 범주에 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가?

Track 14

WOMAN: Reading 14, 오리가미

오리가미는 일본의 종이접기 예술이다. 오리가미는 사각형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진 오리가미 전용 특수 종이를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 이 전용 종이는 앞뒷면의 색상이 다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양이 그려진 오리가미 종이를 즐겨 사용한다.

종이를 골랐다면, 그 종이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종이접기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은 종이로 꽃이나 동물, 또는 기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몇 가지 접기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번씩 종이를 반으로 접어야 하는 때가 있고, 또 종이의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도록 접어야 하는 때도 있다.

종이접기 방법만 신중하게 잘 따라 하면 예쁜 종이꽃이나 동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리가미는 단순한 종이접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오리가미는 일본의 생활 양식을 결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예술이다. 예컨대, 일본은 자연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계절과 날씨, 물과 같은 자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리가미 그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오리가미의 모양도 동물과 같이 자연과 관련한 것이다. 동물 외에도 새와 물고기, 꽃, 그리고 별들도 모두 인기가 높은 모양들이다.

오리가미는 정신수양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오리가미는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꽤 좋은 활동이다. 오리가미를 하는 사람들은 예술만큼이나 이 활동을 좋아한다. 그들은 오리가미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한다. 보통 난도가 높은 창작 활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잠시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이 안정되는 것이다.

오리가미는 아이들의 교육 방법으로도 유용하다. 먼저, 오리가미는 여러 가지의 단계를 포함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오리가미를 단계별로 정확하게 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지시를 따르는 방법에 대해 익힐 수 있다. 또한 신중하게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오리가미에는 사각형과 삼각형처럼 모든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도형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오리가미로 이러한 도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된다.

당신도 한 번 오리가미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준비물은 종이 몇 장과 종이접기에 대한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여러 가지 모양의 오리가미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Track 15

**MAN:** Reading 15, 토템폴

스토리텔링이 가진 예술성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오늘날에는 글로써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글로 전하는 것보다도 더 흔한 일이었다. 이야기는 부모에서 자녀에게, 그 자녀가 다시 그들의 자녀에게 전해줌으로써 기억되었다. 그리고 미국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도 그러했다. 그들은 후손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술을 활용했고, 일부 집단에서는 토템폴을 만들기도 했다.

토템폴은 나무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모양을 다듬어서 만든다. 그리고 조각은 다양한 색상으로 칠해진다. 이 조각들은 이야기 속 캐릭터를 형상으로 만든 것들인데, 가끔씩 동물 캐릭터를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 개중에는 인간도 있다.

이야기는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지상에 빛이 나타난 그 기원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토템폴에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실화나 중요한 사건들이 새겨져 있기도 했다. 그 예로, 한 가문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들만의 토템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가문의 재력이나 명예를 과시할 수 있었다.

당신은 어쩌면 “밑바닥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는 집단 내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쓰임은 올바르지 않다. 토템폴에 새겨진 형상의 위치는 그 인물이나 동물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예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높이가 낮은 조각일수록 더 중요한 인물임을 의미했다. 높이가 낮을수록 사람들이 그 형상을 더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템폴을 만드는 사람은 더 작은 조각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다는 점을 알고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작했다.

토템폴의 소재는 목재이기 때문에 형상이 그렇게 오랜 시간 유지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토템폴이 초창기에는 어떠한 형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 반면, 뼈나 돌로 만들어진 공예품은 오랜 시간 형태가 유지된다. 그에 따라 시기가 오래된 예술품과 유사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근대 양식의 토템폴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아무리 흘렀다고 하더라도 토템폴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가치가 그렇게 많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Track 16

**WOMAN:** Reading 16, 예술의 사실주의

종종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예술 양식이 몇 년 동안 유행을 타다가 그 시간이 다하면 또 다른 양식이 그 유행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반복적으로 유행한 스타일이 있는데, 바로 사실주의이다. 이 예술 양식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현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다.

사실주의는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시기에서 유행을 탔지만, 그 인기가 가장 높았던 시대는 180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는 현실 세상을 보다 몽환적인 양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다른 예술 양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사실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상상의 산물을 통해서가 아닌,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실주의자의 그림은 거의 한 장의 사진과도 같이 사실적이다. 그리고 사실주의자들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기만 한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사건 및 인물을 주로 묘사한다. 사실주의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여러 가지 면에서(심지어 추한 것에서조차) 아름다움을 찾는다. 그림으로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일꾼을 보여주기도 하고, 소설에서는 대도시에서의 삶과 일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묘사하기도 한다.

사실주의는 1850년대 즈음 프랑스에서 인기를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사실주의 화가 집단은 자연과 전원생활의 그림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작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작업 환경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작가 업튼 싱클레어는 자신의 한 저서에서 인부들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당하고 악한 처우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사실주의도 여타 예술 양식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예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시작하면서 그 인기가 식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 즈음에는 예술가들이 현실의 인물과 사물들을 대상으로 그림과 글을 쓰는 양식을 더는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에는 미국 출신 예술가인 앤디 워홀이 현재까지 가장 유명한 사실주의 그림 가운데 하나를 그렸다. 이 값비싼 그림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흔한 수프 캔 한 통이었다.

오늘날 사실주의는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영화 제작자들이 사실주의 형식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식이다.

Track 17

**MAN:** Reading 17, 소통의 문제

오늘날 사람들과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그 어떤 시대에서보다도 쉽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에서는 휴대폰과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 서비스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도 종종 번역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데다가 종종 이러한 실수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 애완견과 함께 다른 나라로 간 영국인 커플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그들이 식당으로 가 컴퓨터 번역기를 사용해서 “저희 개의 식사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전하고자 한 의미를 컴퓨터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식당 직원이 그들의 개를 식당 뒤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준비된 음식이 나왔는데, 바로 그들의 개였다. 컴퓨터가 그들이 전하려고 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번역기는 “이 개를 저녁 음식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전달했다.

이처럼 가끔 컴퓨터 번역기가 형편없이 번역 처리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따금 한 단어도 국가마다 다양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한 말의 모든 단어를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한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어로 *파이토(faito)*라는 말의 어원은 영어의 “최선을 다해 싸워라”라는 말에 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라.”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싸우다(fight)”라는 말 그 자체에는 누군가를 때린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이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로 말하고자 할 때, 컴퓨터는 이 말을 “이제 싸우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문제가 언어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종종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고는 한다. 이 점은 우리가 절대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예로, 한 베스트셀러 책에서 작가는 중국인 여성이 미국인 남자친구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어머니의 집에 데리고 간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 중국인 여성의 어머니는 음식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중국의 문화가 그러하듯, 어머니는 자신이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남자친구는 그 음식을 조금 먹어본 다음 “아니에요, 정말 맛있는걸요!”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 대신, 그는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고 말았다. 그는 적게 한 입 베어 먹고는 “아, 그렇네요. 음식 맛이 별로예요.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Track 18

**WOMAN:** Reading 18, 전동 스쿠터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공기 오염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태울 때, 발생한 연기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공기가 오염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자동차이다. 따라서 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운전을 조금 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운전량을 줄이려면 이동에 필요한 또 다른 수단 및 방법들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전동 스쿠터가 이동 대안의 하나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동 스쿠터는 크기도 크지 않고, 사용법도 수월하며 한 번의 배터리 충전 만으로 상당히 먼 거리까지도 여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장소에서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전동 스쿠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경찰이 그 예에 해당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그저 재미로 전동 스쿠터를 즐기기도 한다.

최초의 전동 스쿠터는 세그웨이(Segway)라는 장치였다. 세그웨이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으며 운전자가 설 수 있는 편평한 부분, 그리고 잡고 있을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있다. 이 세그웨이는 작동법이 대단히 간편한 데다가 한 번의 배터리 충전 만으로도 수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무척 다양한 종류의 전동 스쿠터가 존재한다. 바퀴가 단 하나만 달려있는 스쿠터도 있다. 대부분의 스쿠터는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스쿠터마다 한 가지의 공통점은 있다. 바로 공기 오염에 관한 한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적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동 스쿠터가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하는 일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장거리를 운전하여 직장으로 가는 이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 거주하면서 매일매일 도시로 운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동 스쿠터로는 이처럼 장거리는 몰 수가 없다. 그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스쿠터가 많은 차들과 도로 위를 함께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스쿠터는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세그웨이는 2001년에 처음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아도 상당히 새로운 면이 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전동 스쿠터에 대한 개념에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한 번도 스쿠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단거리 여행에 스쿠터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공기 오염 문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전동 스쿠터가 지금보다 더 발달하고 인기가 많아져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단거리 여행용으로 스쿠터를 이용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에는 참 이로울 것이다.

Track 19

**MAN:** Reading 19, 3D 인쇄

보통 신종 기술이 탄생하면,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한층 더 나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장점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종 기술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와 TV, 또는 인터넷을 생각해보면 된다. 이 기술들은 사회에 분명한 변화를 불러왔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시켰다. 오늘날 가장 흥미로운 신기술 가운데 하나는 3D 인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향후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3D 인쇄술의 배경이 되는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먼저, 컴퓨터가 물체에 대한 3D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런 다음 3D 인쇄기가 물체의 부분부분을 제작한다. 이는 마치 2D 인쇄기가 종이 위에 수백만 개의 작은 점들을 찍어서 그림을 만드는 과정과도 같다. 3D 인쇄기는 플라스틱과 같은 소재의 점들을 쌓고 쌓아서 물체를 만든다.

우리가 3D 인쇄기로 만들지 못하는 물체는 거의 없다. 그런데 오늘날 3D 인쇄기로 제작하는 것은, 특정 제품을 실제로 제작하기 전에 시범으로 만들어 보는 제품 모델이 대부분이다. 이는 아직도 3D 인쇄 비용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에는 모든 사물을 인쇄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혹시 유리잔을 깨뜨렸는가? 혹은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으로 새 의자가 하나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굳이 쇼핑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단순히 몇 분이면 새로운 사물을 인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3D 인쇄기는 대부분 크기도 작고 소재도 한 가지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 크기가 집채만큼 커질 수도 있다. 또한 2D 인쇄기가 다양한 색채를 혼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D 인쇄기도 서로 다른 소재를 혼용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찾아 올 것이다. 이미 현재에도 3D 인쇄기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대다수의 부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머지않은 미래에는 오늘날 생산되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지 않은 외관과, 작동법까지도 동일한 완전한 자동차를 인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3D 인쇄기로 생체 일부를 만들기 위한 재료까지도 인쇄 제작할 수 있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사회에 불러올 변화는 상상조차도 어렵다. 예를 들어 미래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물건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원하는 것을 다운로드만 하면 되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기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계획안과 재료를 판매하기 시작할 수도 있을까?

Track 20

**WOMAN:** Reading 20, 눈

인간의 눈은 신체 기관 중에서도 놀라운 부위이다. 우리는 눈으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 있는 것, 또는 중간의 위치 어느 곳에서도 사방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색채를 구별해서 볼 수도 있고, 고광도나 저광도에서도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의 형태를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걸까?

눈에는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상의 크기를 바꿔주는 렌즈가 있다. 이 렌즈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거리에서도 사물을 잘 볼 수 있다. 눈의 안쪽에는 머리 뒤편을 향해 있는 망막이 존재한다. 망막은 스크린 화면과도 같다. 이 망막에는 우리가 밤에도 사물을 보고, 서로 다른 색채들을 구별하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세포군이 있다.

빛이 눈의 앞면을 통과하여 망막 세포에 닿으면 사물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우리의 뇌로 전달된다. 그러면 뇌에서는 상의 크기와 색채, 그리고 거리와 같은 정보를 만들어서 처리한다. 뇌는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에 활용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단히 빠른 시간(마이크로초 단위)안에 처리되어 우리는 안전하게 걷고 운전하며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눈은 쉽게 손상된다. 나이가 들수록 눈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너무 가깝거나 먼 거리에 있는 사물들을 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다행히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존재한다. 눈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안경처럼 눈 위에 렌즈를 쓰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특수 도구를 이용하여 눈의 렌즈 모양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눈 문제의 경우에는, 의사들이 한 사람의 건강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도 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눈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녹색 계열의 채소나 과일, 그리고 생선과 같은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다. 또한 햇볕에 노출되어 있을 때나 스포츠를 즐길 때, 또는 위험한 도구로 작업 중일 때에도 눈 보호에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요즘 같은 때에 눈 보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래도 컴퓨터나 휴대폰을 너무 오랜 시간 보고 있지 않는 것일 것이다.

Track 21

**MAN:** Reading 21, 돈 절약하기

돈을 절약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살면서 음식이라든지 집세나 옷 값 등등 돈을 써야 하는 일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아니어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물건을 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끝내주는 차나 음악 장비 같은 것들 말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필요한 것들을 사고자 하는 마음과 돈을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균형은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 다음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이다.

먼저, 중고품 구매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새 옷이나 컴퓨터, 혹은 집 인테리어 소품들을 사지 말고, 이미 누군가가 사용했지만 꽤 괜찮은 중고품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자. 잘 찾아보면 새 상품만큼이나 상태가 좋으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한 중고품들이 있다.

두 번째는 책이나 영화를 보러 가는 대신 도서관을 가는 것이다. 책과 영화는 소비하기엔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것들을 한 번씩만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용된 이후에는, 그저 아무 소용도 없이 집에 존재만 할 뿐이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매장을 가지 말고 도서관을 찾아가자. 도서관에서도 훌륭한 책과 영화를 수없이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컴퓨터 게임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한 책을 다 읽으면 그 책을 반납한 다음 다른 책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쇼핑을 갈 때에는 되도록이면 고가의 물품은 사지 않는다. 아르마니나 나이키처럼 이미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은 다른 쓸만한 좋은 상품들보다 가격이 더 나가는 경우가 보통이다. 브랜드 명만이 아니라 상품의 상태를 잘 따져서 사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돈을 절약하면, 언젠가 당신이 사고 싶어 하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는, 쇼핑을 가기 전에 미리 구매 목록을 만들어서 그 목록 대로만 쇼핑을 하는 것이다. 매장에 이르기 전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목록화해보자. 그리하면 쇼핑을 가서도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는 일을 더 쉽게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보자. 일부 사람들은 바쁜 한 주를 보낸 이후 그저 즐기고 싶은 마음에 주말 동안에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소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주의 끝에서 지치기 전에 미리 여가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면, 자전거 타기나 친구들과 공원에 놀러 가기와 같은 몇몇 여가 활동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편이 비용은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더 누릴 수 있다.

Track 22

**WOMAN:** Reading 22, 자유 시장

자유 시장이란 정부가 사업이나 무역 통제를 자제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유 시장 경제 하에서는 국내에서도, 그리고 다른 국가와도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유 시장에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소비자 안전성과 같은 요소에 대한 특수 규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장의 논리는, 시장 그 자체가 이러한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위험한 제품을 생산하면, 사람들은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기업에서도 제품 생산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오늘날 완전 자유 시장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떠올려볼 수 있는가? 사실 그러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다수의 국가가 자유 시장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나라에도 일부 정부가 통제를 가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이나 무역을 대상으로 다소 통제를 가할 수 있다. 모두가 약간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는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그보다 작은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일이 어려워진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을 독점한 대기업의 과한 영향력으로 인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불공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가격 횡포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소비자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그 기업을 규제하여 소기업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완전 자유 시장이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노동자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처우가 대단히 나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도 있고 저임금으로 일주일 중 7일을 연속 근무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혹은 근로자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 오늘날에는 대다수 국가에 근로자 처우 기준 관련 법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켜야 하며, 적당한 휴가 기간과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전 자유 시장은 소비자는 물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저품질 또는 유해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전 세계 여러 기업이 그들이 사용한 유해 물질들을 강이나 호수에 버린 사례가 다수 있다.

Track 23

**MAN:** Reading 23, 최저 소득 보장

모든 사람이 정부로부터 보장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디어의 본질은 동일하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서기 630년 즈음에는 이슬람교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가 자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연간 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 소득 보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여러 지도자들 또한 최저 소득 보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호했다. 미국인 지도자 토마스 페인과 프랑스 통치자인 나폴레옹도 정부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저 소득 보장 제도의 목적은 모든 이가 기본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데에 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사회가 직접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몇몇 국가에서 일종의 최저 소득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돈을 지급받는 수급자에게는 몇 가지 의무 사항이 주어진다. 예컨대, 수급자는 취업 자리를 알아보아야 하고 받는 돈에 대한 대가로 사회봉사를 해야 하기도 한다.

 최저 소득 보장 제도는 그만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가장 큰 이점은 아무래도 가난한 가정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 테다. 이는 한 국가의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좋은 점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점은 큰 리스크 없이 이직을 하거나 학업 생활로 돌아가는 일,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반면에 최저 소득 보장 제도는 말 그대로 돈이 드는 제도이므로 국민에게 더 높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최저 소득 보장 제도의 엇갈린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예컨대 2016년에는 스위스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최저 소득 보장 제도를 더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 반면에 핀란드에서는 이 제도가 사람들의 업무 능률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현재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논쟁은 돈과 일의 가치에 대한 구식 및 신식 견해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Track 24

**WOMAN:** Reading 24, 저작권과 상표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보장받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물은 의자나 테이블과 같이 실재하는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이야기나 노래처럼 무형의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실재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절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무형의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그림이나 책, 혹은 노래와 같은 무형의 가치를 창작하는 사람 또는 집단의 경우, 해당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이란 오로지 그것을 창작한 자에게만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이 창작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창작자에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하고, 이용에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저작권”이라고 부른다. 즉 “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서 ⓒ라는 표시로 나타낸다. 당신도 이 책의 앞 장을 살펴보면, 표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표시가 있는 책을 누군가 복제하여 사용하면, 그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저작권과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상표(™)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활용하는 권한이다. 상표의 개념에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이용하는 사인이나 소리, 단어, 명칭, 사진, 또는 색채의 개념까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 사용하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M”자는 상표에 해당한다. 만약 다른 식당에서 맥도날드와 유사한 빨간색과 노란색의 “M”자 글자를 이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소비자는 아마도 그 식당을 맥도날드로 착각하고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맥도날드는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

물론 저작권과 상표의 개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것 또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권리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수많은 훌륭한 글과 음악, 그리고 예술 작품은 오늘날의 저작권법 하에서라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장 셰익스피어를 떠올려 보아도, 그의 대다수의 작품 또한 오랜 옛날이야기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이야기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것을 재탄생시킴으로써 성공한 기업이 바로 디즈니이다. 백설공주나 피터팬, 또는 미녀와 야수와 같이 유명한 영화 이야기들은 사실 오랜 옛날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아마 디즈니가 이러한 옛날이야기를 복제하여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탄생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저작권법 하에서라면, 어떠한 예술가도 향후 디즈니의 작품을 복제하여 새로운 예술로 재탄생시킬 수 없다.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

Track 25

**MAN:** Reading 25, 역도

많은 사람들이 역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찾는다. 물론 운동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다. 그러나 역도 운동을 하면서도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역도는 어쩌면 간단한 운동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다치지 않고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당신이 사전에 거쳐야 하는 몇 가지 훈련이 있다.

역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웨이트를 너무 많이 들어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따금 근육만을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해 웨이트를 던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웨이트의 무게를 통제하지 못해 자칫하면 다치는 수가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손에서 웨이트를 놓쳐서 발 위로 떨어뜨리거나 또는 가까이에 서 있는 타인을 칠 수도 있다. 혹여 웨이트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던지는 행위 그 자체는 우리의 근육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근육이 쉴 수 있도록 운동을 중단해야만 한다.

또한 사람들은 웨이트를 들어 올리는 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웨이트를 들어 올릴 때 숨을 참는다. 그런데 숨을 참으면 혈압이 상승하여 심각한 경우 기절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실수이다. 게다가 손에 웨이트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절하면 이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웨이트를 들어 올리면서 올바르게 호흡하려면, 들어 올릴 때(즉 운동을 할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즉 휴식의 자세로 돌아갈 때) 숨을 들이쉬면 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실수는, 사람들이 체육관을 매일매일 가고 휴식은 절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 체육관으로 가야 빠른 시간 안에 근육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근육이 자라려면 휴식은 필수다. 역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운동을 하러 체육관에 갈 수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주기는 각 역도 연습 사이 2, 3일의 간격을 두고 체육관에 가는 것이다. 그 2, 3일 사이에 근육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Track 26

**WOMAN:** Reading 26, 임상 실험

오늘날의 제약 시장은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에서 매 순간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단순히 신종 약품을 만들었다고 하여 그것을 곧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품을 개발한 기업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친 다음 정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먼저, 기업에서는 신약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잠시나마 상태가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약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소비자가 약을 복용하였을 때 건강에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동물에게 약을 먼저 테스트해보기도 한다. 즉 동물에게 먼저 약을 먹인 다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동물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로는 인간에게 약을 테스트해본다.

매장에서 신약을 판매하기 전에 인간에게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과 일반 동물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이 약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약의 안전성을 인간에게 실험하여 안전성을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약 회사는 약을 복용하는 데 동의한 소규모 집단을 모집하여 그들을 연구한다. 여기서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참여한 동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환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실험 집단에게서 어떠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약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약 회사는 신약의 안전성 그 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즉 그들이 개발한 약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약의 효과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두 집단 중 한 집단에게는 실제 약을 제공하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약처럼 보이지만 실제 약은 아닌 것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후자 집단은 그들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이다. 그런 다음 제약 회사가 이 두 집단을 비교하면, 실제로 약을 복용한 집단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Track 27

**MAN:** Reading 27, 독감과의 싸움

우리 중 대부분은 일 년의 한 번 정도, 보통 겨울에 독감에 걸린다. 그러면 우리는 열을 감지하고 목구멍에서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몸살을 겪기도 한다.

독감에 걸릴 위험을 낮춰주는 예방 백신이 존재한다. 이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백신은 특정 질환이 시작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약품이다. 보통 이러한 백신은 살면서 단 한 번만 맞으면 되기는 하지만,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매년 맞아야 한다. 이는 독감 바이러스가 해마다 변하기 때문이다. 즉 작년에는 효과가 있었던 백신이 올해에는 다시 전과 같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독감 백신을 바꾸는 것은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하는 일 중 하나이다. WHO는 전 세계에 걸쳐 보건 센터를 두고 있어서 연구원들이 그곳에서 신종 독감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매년 새로운 백신 개발에 힘쓴다.

독감 백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죽은” 독감 바이러스를 주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백신 형태의 독감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다시 할 수 없도록 처리된 것이다. 그리하여 주사되는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스스로 더 강해질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죽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형의 백신은 코 부위로 가는 것이다. 즉 혈액으로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체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자기 복제도 가능하지만 인체가 항체를 만들어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처리된 바이러스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이나 강한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의 백신을 사용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근래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도 많이 감소하였다.

백신을 맞는 것만으로 독감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독감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 가지의 약을 복용함으로써 약간이라도 상태를 호전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처럼 복용한 약물들이 실제로 독감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아니다. 즉, 약물이 독감 바이러스 그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Track 28

**WOMAN:** Reading 28, 페니실린

1800년대에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수많은 질병은 매우 작은 생명체인 세균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었다. 학계에서 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과학자들이 밟아야 할 다음 단계가 명확해졌는데, 바로 이러한 세균을 죽이는 방법이나 세균이 인체에 침투하여 병환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과학자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발견은 실험에 의한 계획된 결과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운으로 발견된 것이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1881년에 태어났다. 그는 의사 및 과학자로 활동하면서 세균 연구 및 이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찾는 데에 일생을 쏟았다. 그리고 1928년에는 어떤 초록색 곰팡이와 같은 물질을 발견했다. 이 물질은 세균 무리 가운데에서 자라기 시작했는데, 모양새는 마치 오래된 빵에서 자라나는 초록색 곰팡이와도 닮아 있었다. 플레밍은 이 곰팡이가 주변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광경을 보고는 놀라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는 이 곰팡이를 더 자세히 연구하면서 곰팡이를 조금 더 만들었다. 그는 곰팡이가 수많은 종류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불렀다.

플레밍은 계속해서 페니실린에 대하여 연구했지만, 그것이 인체 내 세균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에 그는 페니실린이 세균을 죽이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인체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1939년에 하워드 플로리라는 또 다른 과학자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플로리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페니실린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페니실린 생산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페니실린이 인체 내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약물 중 최대 80%가 4시간 내에 체내에서 배출되었다. 그런데 도로시 호지킨이라는 과학자가 페니실린의 모든 구조를 면밀히 연구한 끝에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밝혀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1945년에는 페니실린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들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노벨 의학 상을 수상했다. 그 이후, 수많은 신종 페니실린이 개발되었으며 덕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Track 29

**MAN:** Reading 29, 보이저 프로젝트

과학자들은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의 정보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그처럼 먼 곳까지 날아가 또 다른 행성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우주선을 만든다. 이렇게 제작하는 우주선 중에는 무인 우주선도 있는데, 이는 우주로 나간 다음 지구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우주선을 말한다. 이러한 우주선은 우주로 나가서 지구에서 연구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의 사진을 찍은 다음 인간이 지구에서 그 자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해낸 우주선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보이저 1호이다.

나사(NASA)는 1970년대에 보이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당시 나사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라는 두 가지의 우주선을 만들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수행하려고 한 본래의 목표는 목성과 토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두 우주선은 1977년에 지구에서 우주로 출발했다.

보이저 1호는 1979년에 목성에 도달하여 사진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우주선은 목성에 매우 근접한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성의 고리나 위성을 대단히 선명한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목성의 “대적점”을 잘 포착한 사진도 남겼다. 대적점은 목성에서 강력한 폭풍이 부는 거대한 지점을 일컫는 말이다. 이 지점은 규모가 무척이나 거대한데, 그 지점 안으로 지구만 한 크기의 행성이 세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이다. 보이저 1호는 목성 탐사를 마친 다음 토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토성에 도착하여 토성의 고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와 동시에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을 탐사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각각의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도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어 나사는 두 우주선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이번에는 태양계를 벗어나 우주의 성간을 연구하는 임무였다. 한편으로는 나사가 이 두 우주선이 어느 정도까지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것도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 두 우주선은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 바쁘기만 하다. 2017년 현재 보이저 1호는 210억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함으로써 현재까지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한 우주선이 되었다. 보이저 1호는 2025 년 즈음 작동이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쯤에는 동력이 다 소진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보이저 우주선이 해 온 훌륭한 임무 수행 덕분에 우리가 우주에 대하여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만큼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Track 30

**WOMAN:** Reading 30, 유로파

몇몇 과학자는 생명체를 품은 행성이 지구가 유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바는 없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에게 무척이나 흥미를 안겨준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로파이다. 유로파는 목성의 최대 위성 중 하나이다. 이곳은 얼음으로 뒤덮여있는데 그 얼음 밑에 소금물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 추측이 맞는다면, 생명체는 대개 생존에 물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므로 이 바다가 생명을 위한 적절한 조건이 되어줄 수 있다.

유로파의 온도는 영하 약 160도로, 대단히 추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곳은 완전하게 얼음으로 뒤덮여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유로파에는 서로 밀고 당기는 다양한 힘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힘들이 열을 발생시키면서 얼음 밑의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일부 얼음으로 변하지 않은 물이 있을 수도 있었다. 즉 얼음 밑에 따뜻한 바다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흥미로운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가설의 사실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유로파에 존재하는 얼음이 그에 대한 몇 가지 신호를 보여준다. 다만 이 신호가 얼음 밑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역사상 유로파에 바다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에도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나사는 유로파에 착륙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할 우주선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2005년에 그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나사에서 이제 유로파를 탐사할 수 있는 다른 우주선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탐사 우주선이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면, 우주선은 얼음 밑 바다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며 어쩌면 그 깊이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로파에 충돌하게 하여, 충돌한 순간에 튄 얼음이나 기타 파편의 샘플을 수집하게 할 수도 있다. 일부 과학자는 우주선을 보내서 직접 얼음을 물로 녹인 다음 바다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만약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가 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Track 31

**MAN:** Reading 31, 화성에서 살기

인간은 언제나 적색 행성인 화성에 가기를 꿈꿔왔다. 물론 화성보다는 달이 지구와 더 가까운 거리에 있고, 크기 면에서는 금성이 지구와 더 유사하지만 화성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다음에 향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행성이다. 우리가 화성과 그 주변에 설치한 장치들 덕분에 이 행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비약적으로 많아졌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이웃 행성인 화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화성에서의 삶에 대한 아이디어에도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다.

우리가 보낸 장치는 1990년대 이래로 화성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동안 장치들은 지구로 대단히 놀라운 정보들을 수없이 보내왔다. 예컨대, 현재 나사의 과학자들은 한때 화성에 물이 존재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화성에서 발견된 둥근 암석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둥근 암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성의 암석도 그 위로 물이 흘러가면서 둥근 모양이 만들어진 것일 테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화성의 지표면 아래에 얼음이 존재하고, 어쩌면 그곳에 물이 일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화성의 물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화성에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족되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있다. 첫 번째로, 안전하게 화성에 이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지구에서 화성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반년 이상으로 길다. 이는 우주에서 지내기에 인간에게는 꽤 긴 시간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더 많은 물체를 실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우주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화성에서 호흡할 공기를 만드는 방법과 식량 및 주거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방안도 계획해야 한다. 이는 다루기에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만약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닥치면, 그들은 지구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노출될 우주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에 대한 한 가지 아이디어는 지하의 살 공간을 찾거나 땅을 파서 집을 만들고 사는 것이다.

언급한 일 중 몇 가지는 이미 계획 중에 있다. 예를 들어 향후 몇 년 안에 화성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미국의 사업가 엘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살 준비를 하기 위해 몇 개의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Track 32

**WOMAN:** Reading 32, 페르미의 질문

1950년대, 엔리코 페르미라는 한 과학자가 단순하면서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모두 어디에 있는가?*

페르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을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대단히 흔한 존재라는 것이다. 즉 생명체는 이곳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서부터 가장 건조한 사막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수조 개의 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 그중 최소 몇 백만 개의 별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그중 몇 천 개의 별에는 우주를 여행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는 질문했다. *도대체 이 모든 외계인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인가?*

몇몇 사람들은 외계인이 이미 지구를 다녀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된 적도 없고, 하늘의 우주선이 포착된 믿을 수 있을 만한 사진도 없다. 그리고 다른 행성과 소통을 주고받은 바도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수천, 어쩌면 수백만에 이르는 지적 외계 생명체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숨어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단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답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일까?

사실, 수년간 페르미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제시해왔다. 일부 과학자는 생명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지구에는 어디에서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단지 그뿐이라는 것이다. 지구상에만 존재할 뿐, 다른 곳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과학자는 당연히 생명체가 흔한 존재일 수는 있지만, *지적* 생명체는 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오직 시간 그 자체를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고도로 진화한 인류는 불과 몇 백 년 전에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별과 행성의 나이는 최대 138억 년이나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존재해온 것은 아닐 뿐이라는 말도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 외에도 가능한 답변들이 존재한다. 하나는 다른 외계 생명체와의 거리가 그저 먼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막론하고 그 행성의 생명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답변은 인간이 우리의 행성인 지구를 어느 정도로 멸망에 가까운 곳까지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한다. 그들은 “지적인” 생명체란 언제나 자멸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아마 저 우주 밖에 수없이 많은 외계인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만, 어떠한 생명체도 우리와는 고의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일까?

Track 33

**MAN:** Reading 33, 어족

모든 언어는 어”족”에서 유래한다. 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언어 군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단일 언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스페인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로마인의 언어인 라틴어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독일어가 인도의 주요 언어인 힌디어와 어족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가?

전 세계 가장 큰 어족은 인도-유럽 어족이다. 인도 유럽 어족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이 어족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그리고 힌디어가 있다. 이 모든 언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언어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일까?

1700년대 영국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점령했는데, 이때 인도에 거주하던 일부 영국인들이 인도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언어가 그리스어나 라틴어와 같은 일부 유럽 언어들과 어떻게 유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 단일 언어를 사용하던 인류 집단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분리되어 멀리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로부터 수천 년 후, 이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변화하여 수많은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다. 예컨대, 영어의 “형제(brother)”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동포, 형제라는 의미의 *프라터*(*frater*)이고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브라터*(*bhraatr*)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한 이 단어들이 모두 “bhrater(브라터)”와 같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던 굉장히 오래된 단일 언어의 한 단어에서 유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오랜 옛날, 인도-유럽어를 구사하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언어 연구 학자들은 몇 가지 추측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구 인도-유럽어의 “늑대(wolf)”라는 단어는 오늘날 다른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호랑이(tiger)”와 같은 단어는 구 인도-유럽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인도-유럽어를 구사하던 사람들이 늑대는 있어도 호랑이는 없는 환경에서 살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인도-유럽어에서는 언덕, 연기, 숲, 그리고 말과 같은 단어가 발견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단어를 근거로 구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동유럽 어딘가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Track 34

**WOMAN:** Reading 34, 음모론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그에 대해 논쟁을 벌여오다 마침내 합의가 되어 일반적인 하나의 아이디어가 된 것들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과는 다른, 혹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설명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아이디어들을 음모론이라고 부른다. 가장 잘 알려진 음모론 가운데 일부에는 누가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를 암살하였는지, 그리고 1969년 달 착륙이 단순한 영화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는지 등이 있다.

지난 10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음모론 가운데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과 관련한 것이었다. 모든 역사 책에 따르면 히틀러는 1945년 베를린에서 사망했다. 그는 전쟁의 말미에 은신하던 비밀의 방 내부 깊은 지하실에서 죽었다. 그는 독일이 전쟁에서 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싶지 않았다. 결국 도망칠 기회를 잡지 못하여 그는 자살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중 일부는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누구도 히틀러의 시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의 시체 사진이나 그와 관련한 의학적인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은 음모론만 더욱 키워줄 뿐이었다.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히틀러가 도주에 성공하여 다른 나라로 갔을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 한 음모론에 따르면,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스페인까지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일 잠수함을 타고 아르헨티나까지 이동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 나라는 전쟁 이후 독일의 몇몇 지도자들이 도주를 위한 장소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히틀러가 여생을 아르헨티나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히틀러를 숨겨주었다면 가능하다. 그가 아르헨티나에 머물면서 외부 출입을 삼가고 집 안에만 숨어서 지냈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목격을 피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음모론이 그러하듯이, 이 이론 또한 현실성은 대단히 낮다.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한 대답이 정답일 가능성이 언제나 훨씬 더 높은 듯하다.

Track 35

**MAN:** Reading 35, 학습 장애

이따금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구나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특정 시기에 학습 기복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소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원인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들이 지난 수년간 의사들이 발견해 온 다양한 학습 장애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10% 정도가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는 특히나 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이 장애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는 점이다. 한 가지 일반적인 문제는 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뇌가 단어의 글자들을 섞어서 혼동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사람은 단어를 거꾸로 보거나 순서를 뒤바꾸어 보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 유형은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학습 장애는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종종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능도 다른 사람들의 지능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뇌는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학습에도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사실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적절한 도움만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 만큼 학습을 잘 해낼 수 있다.

먼저, 교사나 의사가 해당인에게 특수 검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야 그 사람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학습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서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학습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전의 사람들은 학교생활에서 수많은 문제를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학교를 포기하거나 중퇴하고 싶어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한 인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컨대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나 사업가인 리처드 브랜슨은 둘 다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들이다.

Track 36

**WOMAN:** Reading 36, 암흑기

빛의 밝음과 어둠의 개념은 종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활용되고는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암흑기라는 말은 서기 약 500년부터 1200년까지의 유럽을 일컫는 말로 역사상 안 좋았던 때로 간주되는 한 시기를 의미한다.

암흑기는 당시에 만들어진 새로운 발견 및 기록의 수가 현저히 적은 데에서 비롯된다. 이는 그 시기의 전후 시대를 살펴보면 특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암흑기와는 다르게 전후 시대에는 위대한 예술 작품이 탄생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진보적으로 발전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암흑기 동안 남겨진 기록이 적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기록이란 교육의 지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즉 당시에 남겨진 기록이 다른 시대보다 적다는 사실은 암흑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거나 쓰지를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암흑기 때에는 일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대, 유럽의 상위권 대학 중 일부는 바로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암흑기라는 이름이 붙은 또 다른 이유는 인류에 대한 종교적인 통제에 있다. 교육이 덜 이루어지고, 정부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지도자가 집단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전쟁도 시작할 수가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무분별하게 따르고 무엇이 자신들에게 최선인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난 현상이다.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암흑기(Dark Ages)라는 이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은 암흑기에 일어난 실제 사건들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암흑기에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것이다. 예컨대 그 시대에 만들어진 쟁기와 안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기술이다.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면서 과거에 대한 이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암흑기라는 이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름, 예컨대 중세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Track 37

**MAN:** Reading 37, 이슬람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종교이며 신자는 세계 인구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 신자들을 이슬람교도(무슬림)라고 부른다. 이슬람교도는 세상의 유일신으로서 알라라는 신을 믿고, 마호메트가 알라의 사자라고 믿고 있다. 이슬람은 기둥(필라, pillar)이라고 불리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이 따라야 하는 교리이다.

기둥 가운데 하나는 금식이다. 이름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슬람 신자들은 금식 기간 동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알라와의 관계를 생각해야만 한다. 무슬림은 일 년 중 서로 다른 시기에 금식 기간을 보내는데, 대부분은 라마단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금식에 들어간다. 라마단은 이슬람 연도에서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달이다. 라마단 기간은 해마다 다르다. 이는 이슬람 연도가 달의 움직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교도들은 낮 시간에는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도 일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는 자신들보다 불행한 사람들, 예컨대 가난하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타인을 생각하면서 보내기도 한다. 물론 모든 이슬람교도가 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프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어리거나, 또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밖의 건장한 모든 이슬람교도는 금식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일출의 시간부터 일몰의 시간까지, 그들은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는 어쩌면 다시 먹거나 마실 수도 있다.

라마단이 끝나갈 무렵에는 성대한 축제를 벌인다. 이드 울피트르(Eid al-Fitr)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다. 축제는 3일간 지속되며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기지만, 대다수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며, 특별한 옷을 입거나 기도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라마단과 금식 행위는 이슬람에서는 중요한 일부이다. 또한 이것은 이슬람교도가 자신의 종교를 진정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한 방식이기도 하다.

Track 38

**WOMAN:** Reading 38, 종교적 극단주의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인은 종교적 극단 주의자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극단 주의자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타인을 다치게 할 정도의 대단히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타인이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타인을 다치게 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여러 극단주의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 밀집되어 있으며 일부는 미국에 존재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들려온 뉴스는 유럽과 북미에서 심각한 사상자들을 만든 일련의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에 관한 소식이었다. 그 예로 2001년 9월 11일에는 비행기들이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를 강타한 사건이 있다. 또 다른 예로는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가 있다. 2015년 파리에서는 총기 테러가 있었고, 2017년 이집트의 한 회교 사원에서는 집단 공격이 있었는데, 그 밖에도 테러 사건들은 더 많다.

이러한 사건으로 미루어 보면 퓨 리서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종교적 극단 주의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상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처럼 종교적 극단 주의자에 대한 문제가 비단 이슬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나 불교 등 모든 종교마다 위험한 극단 주의자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기독교 극단 주의자들이 1980년대 이후로 여성이 아기를 낳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극단 주의자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지지하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자신이 믿는 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극단 주의자들이 종교적 실천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같은 종교를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동의를 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 주의자들을 다른 신자들과 별개의 문제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 지역 공동체와 사업체를 포함하여 수많은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극단주의 집단에 합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이에 대한 광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을 도와주기도 한다. 종종 극단 주의자들의 테러가 발생하면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킨 해당 종교인들 전부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돌아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중요하다. 만약 테러를 이유로 공동체 사람들이 분열되면, 불행히도 극단주의 집단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Track 39

**MAN:** Reading 39, 올림푸스 산의 신들

수천 년 전,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포스 산의 꼭대기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 산에 있는 신들 대부분이 인간과 유사한 외모에 행동 또한 비슷하며, 하나의 거대한 가족 집단과 같이 서로서로 관계를 맺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올림포스의 신들을 믿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신화는 서양 문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올림포스 가족의 최고 권위자는 제우스라는 신이다. 제우스는 다른 수많은 신들의 아버지이며 하늘의 신이기도 했다. 그는 번개나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을 통제했다. 그의 형제인 포세이돈(Poseidon)은 바다의 신이었다. 또 다른 형제인 하데스(Hades)는 지하 세계의 신이었다. 그 밖에도 사랑과 죽음, 동물, 전쟁, 심지어 와인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인간의 삶의 일부를 통제하는 신들도 존재했다.

올림포스 신들은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서로 싸우거나 사랑에 빠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 상대가 인간이기도 했다. 대부분 그리스 신화는 한 신이 인간을 도와주거나 혹은 다치게 하는 그런 사건들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보트가 길을 잃도록 신들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괴수를 만들어 인간 영웅과 싸우도록 만들기도 하며, 인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도 한다. 그 예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올림포스 신은 헤라클레스(Heracles)이다. 그는 제우스와 인간 여성 사이의 아들이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몇몇 현대 종교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모든 올림포스의 신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한 명의 신이나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예컨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사냥꾼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Artemis)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포스 신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했다. 그리하여 이야기상 수천 명의 그리스 신이 존재하게 되었고, 때로는 서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올림포스 신화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있어 보다 풍부하면서도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로 가득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리스 신화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 테다.

Track 40

**WOMAN:** Reading 40, 이크토미와 오리들

이크토미는 미국의 북중부 지역에서 유래하는 토착 미국 종교의 등장인물이다. 그는 이야기 속 영웅으로 등장하는데, 이따금 자신의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타인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인물이다. 미국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대개 인간의 이야기 및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물, 예컨대 나무와 동물, 그리고 식물들이 인간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루는 이크토미가 잔디 위를 걸으면서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침 강가를 걷고 있었는데, 강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몇 마리의 오리를 보고는 기회를 보아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땅에서 잔디 몇 줌을 뽑아서 그의 담요에 묶었다. 그런 다음 어깨에 들쳐 매고 오리에게로 다가갔다.

오리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크토미를 보고는 그를 위대한 전사라고 생각했다. 오리들은 이크토미를 불러서 이리 와서 함께 놀자고 했다. 이크토미는 무시무시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데 오리는 그의 계획은 알지도 못한 채 이크토미를 계속해서 가까이 오라고 불렀다. 그리고 오리들이 마침내 이크토미가 들쳐 매고 있는 담요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담요는 무척 아름다운 음악들로 가득한 물건이야.”라고 이크토미가 대답했다.

“와, 나도 그 음악들 들어보게 해줘!”라고 오리들이 요구하면서 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크토미는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오리들에게 약속했다. 단, 오리들이 눈을 감고 그와 함께 춤을 추어야 한다는 조건에서였다. 오리들은 그러기로 했다.

오리들이 눈을 감았을 때, 이크토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리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몇 분 동안이나 눈을 감은 채 계속해서 이리저리 춤을 추었다. 그러나 한 오리가 눈을 떴고, 그가 발을 땅에 내릴 때마다 이크토미가 한 마리씩 오리들의 목을 부러뜨리는 광경을 보고 말았다!

이제 이크토미에게는 먹을 수 있는 오리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오리들을 집어서 요리를 하러 갔다. 그런데 그가 타오르는 불을 보고 있을 때, 한 늙은 나무가 그의 위로 쓰러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 무리가 지나갔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계속 나무 밑에 깔려 있었다. 늑대들은 맛있게 요리된 오리들의 냄새를 맡았다. 늑대 무리는 이크토미 바로 앞에서 모든 요리를 먹었고, 이크토미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바로 언제나 위험한 순간에 대비하라는 것이다.